

지역 소식통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

고창 호암마을 '장려상'

고창읍 호암마을(대표 방부혁)이 제7회 전라북도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 참여해 소득·체험분야 장려상을 수상했다.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는 전북도가 매년 생생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의 우수 사례를 공유, 확산하고 마을의 자부심과 의욕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고창읍 호암마을은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 소득·체험분야로 신청해 6월 현장평가 등을 통해 장려상을 최종 수상했다. 부상으로 받은 시상금 70만 원을 마을 꽃밭가꾸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호암마을은 1947년 한센인 집단 정착지로 마을이 형성돼 1961년 말 고창 천주교회의 공소(동해원)가 들어섰다.

특히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소득을 높이기 위해 마을테마를 힐링·체험 공간으로 만들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열대거세미나방 유충'

부안군, 긴급 공동방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중국으로부터 비래된 돌발병해충인 열대거세미나방 유충이 발견되어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7~8일 긴급방제를 추진하였다.

열대거세미나방은 아메리카 대륙의 열대·아열대 지역이 원산지이며 아프리카(2016), 인도·동남아시아(2018), 중국(2019) 등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고위험 장거리 이동성 해충으로 옥수수, 수수, 조, 벼 등 벼과 작물은 비롯해 80여개에 달하며, 유충이 대량으로 발생하여 작물의 잎, 줄기, 이삭을 폭식하여 큰 피해를 주는 광식성 해충이다.

병해충 예방결과 추산면 사료용 옥수수 포장에서 발생한 필지를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 3ha의 전면적을 긴급방제 구역으로 설정하여 적용약제를 살포하고 수확기인 10월초까지 지속적인 살포조사를 중점 관리를 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세계 문화유산 '정읍 무성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1주년 맞아 역사적 의미·가치 제고 서원 활용한 교육·공연·체험 프로그램 등 행사 다채

조선시대 핵심 이념인 성리학을 보급하고 구원한 정읍 무성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았다.

유네스코는 지난해 7월 6일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무성서원을 포함한 9개 서원을 엮어 한국의 서원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다.

그중에서도 무성서원은 흥선대원군의 대대적인 서원 철폐령 속에 살아남았던 전라북도 유일의 서원으로 1988년 사적 제166호로 지정됐다.

시는 대한민국의 문화재를 넘어 세계의 문화유산이 된 무성서원의 활용과 관리 방안 등 후속 조치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12면>

유네스코의 등재 기준을 준수하면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인지도와 활용도는 물론 서원의 본래 모습과 가치를 높이는 데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관련해 시는 다양한 홍보 채널 확보와 함께 무성서원을 활용한 사업과 공연·강좌·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향교와 서원 본연의 교육 기능을 살

리는 동시에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문화재가 역사 교육의 장이자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2월까지 최치원의 사상과 현 가부에서 피어나는 풍류(風流)와 도(道)에 대한 강좌와 (사)수제천 연구단과 전라·정가·악회의의 국악 연주를 진행한다.

초·중·고·대학생과 유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절과 다례, 사자소화 등을 배우고 체험하는 1박 2일 서원스테이 프로그램도 총 12회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정가와 서예, 고전강독을 통해 무성서원 본래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강좌도 준비정신 학(學)에 기대다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총 7회에 걸쳐 진행되는 향교·서원 등 유교 문화 답사 프로그램 '최치원·정국인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서'도 진행된다.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축전 행사로 8일 '국악은 풍류를 타고'라는 주제로 KBS 국악한마당 행사도 열린다. 무성서원에서 열리는 KBS 국악한마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 녹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25일 KBS에서 방영된다.

유진섭 시장은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맞춤형 활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역 전문인력의 참여로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등 문화유산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성서원은 흥선대원군의 대대적인 서원 철폐령 속에 살아남았던 전라북도 유일의 서원으로 1988년 사적 제166호로 지정됐다.

'정읍 역사·정체성 담은 유물 공개 구입'

정읍시립박물관, 31일까지

정읍시립박물관이 공립박물관 정체성 확립과 전시·연구 자료 활용을 위해 정읍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유물을 공개 구입한다.

구입 대상은 세계문화유산 무성서원 및 동화 등 정읍의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모든 유형의 자료로써, 소장

경위가 분명해야 한다. 도공품이나 도난품 등 불법 유물이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료는 신청할 수 없다.

매매를 원하는 개인 소장자, 단체, 문화재 매매업자(문화재청 허가) 등은 정읍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 기재된 서식을 작성해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유물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유물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구입 여부를 결정한다. 유물 구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로는 정읍시립박물관(063-639-6792)으로 하면 된다.

정읍시립박물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 정읍과 관련된 유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복합공간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읍, 관내 4곳 '착한 가게' 현판 전달

부안군 부안읍 전치종합건설(대표 신남철)과 새만금 기획(대표 심상열), 건강한 뽕잎 왕만두(대표 김병권), 신웅방앗간(대표 정세권) 등 4곳이 착한 가게에 가입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

부안읍(읍장 채종남) 맞춤형복지팀은 지난 7일 착한 가게에 가입한 이들 4개 업체에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 가게는 매출의 일정액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기적으로 기부해 사

랑나눔을 실천하는 업체로 기부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부안읍 관계자는 "착한 가게 가입 문의로는 부안읍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며 "후원금은 물론품 지원, 생활지원 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부안읍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8일 오전 서울 코리나호텔에서 열린 '2020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시상식에서 고창멜론과 땅콩이 지역 농·특산물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고창 멜론·땅콩, 품질만족 대상

신기술 보급·고급화로 소비자 입맛 사로잡아

달콤한 맛과 향을 자랑하는 고창멜론, 고소한 식감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고창땅콩이 전국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코리나호텔에서 열린 '2020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시상식에서 고창멜론과 땅콩이 지역 농·특산물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멜론은 4년 연속, 땅콩은 3년 연속 수상으로 한 반도 농생명 수도의 가치를 높였다.

(주)디지털조선일보가 주최한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은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고객만족을 위한 끊임 없는 품질 개발과 양질의 서비스 구현에 앞장서 신뢰와 사랑을 받는 최고의 품목에 수여된다. 고창멜론은 미네랄과 원질과 인이 풍부한 황토에서 재배되며 안정된 재배기술과 많은 일조량으로 당도가 높다. 또 과즙이 풍부하고 향이 좋아 직거래 재구매율이 80%가 넘는 농가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고창 멜론을 먹어본 사람은 계속 찾는다.

고창군은 명품멜론 생산을 위해 농

촌개발대학에 '멜론과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각종 교육과 기술지도 사업을 펼치고 있고, 고창멜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수출사업도 진행중에 있다. '고창땅콩'(재배면적 400ha)은 전국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며, 서해안 해풍을 맞고 자라 고소한 맛과 선명한 표피 색깔로 국산 땅콩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해는 대한민국 농특산물 대표주자만 선정되는 청와대 추석명절세트에 '고창 생일땅콩'이 이름을 올렸다.

고창군은 매년 50~100ha의 땅콩 특화단지 만들어 재배기술, 토양·비료관리, 파종법 같은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신품종(신발광 다량, 흑생, 케이올) 종자 공급을 통해 상품성을 높였고, 연중 병해충 종합관리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품질 균일화 유지에 힘썼다. 고창군은 기존 알땅콩 위주의 생산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해 땅콩(새싹)의 소아(프린트)골다공증 개선), 라스베리트(함양효과), 아스파라긴산(숙취해소) 등의 기능성 성분 가공제품 개발을 지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 구시포·동호 해수욕장 오늘 개장

고창군이 9일부터 구시포와 동호해수욕장을 개장한다고 8일 밝혔다. 해수욕장 운영기간은 8월16일까지 39일간으로,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군은 개장에 앞서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화장실과 주차장 조성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안전관리 근무인력을 배치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객이 감소함에 따라 고창지역 해수욕장으로 피서객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군은 자체 운영인을 마련해 코로나19 방역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해수욕장 진입도로 길목마다 발열검역소를 설치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해수욕장 입장객에 대하여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명부를 작성한 후에 입장이 가능하다. 관리사무소, 화장실, 샤워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손소독제 상시 비치하고, 방역 전담요원을 배치해 다중이용시설과 안전장비·시설에 대해 하루 2차례 이상 살균·소독을 실시한다. 또 해수욕장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는 하루 2차례 이상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입장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과 생활속 거리두기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